

현장 보고

---

##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도와 DMZ 평화지도

김대일 (리소건축사사무소)

지난 2023년 1월 13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과 한반도 평화국립대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즉 DMZ(Demilitarized zone)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DMZ는 역사적, 군사적으로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는 한편,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자연이 숨 쉬게 된 역설적 공간이다. 또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역설적이고 복합적 공간인 만큼 여러 기관과 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DMZ를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학술회의는 DMZ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과 관점들을 한데 모은 자리였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 <DMZ 평화지대화 논의와 법체계>, 제2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1>, 제3부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

운 시도와 과제-2)라는 주제 아래 역사, 정책, 법률, 지리, 문화,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필자는 'DMZ 평화지도' 제작에 함께한 경험을 계기로 제2부의 세 번째 발제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 관련 토론자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 DMZ에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가 공통의 관심사로 한자리에 모인 학술회의에서는 단순히 여러 이야기를 한 테이블 위에 나열해 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느껴졌다. 본 글에서는 세션별 발제 내용의 흐름과 학술회의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필자가 참여했던 'DMZ 평화지도'에 관해 소개하려 한다.

## I. 학술회의의 분위기, 세션별 주제와 소감

### 1. DMZ 평화지대화 논의와 법체계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DMZ 평화 지대화 관련 그간의 논의(1970년대~2010년대)〉를 주제로 국토의 분단과 DMZ의 설정 과정, DMZ의 공간적 특성과 현안을 설명하고, DMZ 평화지 대화에 관한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DMZ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을 제안하였다.

6·25 전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며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은 여러 차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자연 생태계 보존 방안을 강조하며 남북한 교통망 연결 사업, DMZ평화생태공원, DMZ세계평화공원 등을 구상 및 제안해 왔으나 북한은 DMZ의 평화

적 이용보다는 군사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응답으로 거절을 표시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인 제재와 남북 관계 단절로 DMZ의 평화지대화 진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발제를 통해 DMZ를 둘러싼 역사적 전개 및 시대별 특성과 한계를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DMZ 평화지대화 추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부터 대화를 시작하되 남북한 기존 공동관심 분야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관심을 유도한다. 둘째, DMZ 평화지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며 국제기구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셋째, DMZ 평화지대화 실행은 상호군사적 부담이 적은 분야에서 시작하여 국제기구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번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책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DMZ 평화지대화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4년에 열릴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계기로 DMZ를 통해 남북한이 만나 평화지대화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 교수는 〈DMZ 평화지대화 법률 체계와 과제〉를 주제로 현재 DMZ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어떠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발표하였다.

현재 DMZ 관련 법률 체계는 군사정전협정, DMZ 관련 남북합의서, 남한의 법률, 북한의 법률, 총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의 법률 체계에서는 DMZ를 따로 규율하는 법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남한의 법률 가운데서도 DMZ를 전제로 한 법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역시 DMZ를 규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즉 남한법이든 북한법이든 현재 DMZ에 관한 전속적인, 혹은 특별법으로서의 규범 체계는 사실상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효원 교수는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국내 법적으로는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목적과 추진방향, 범위가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전 금강산 관광과 이를 위해 철도를 놓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합의를 체결해 DMZ 관할권에 관한 예외를 도출했던 사례를 들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관할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1부에서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DMZ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정치적·법적 논의를 살피고, 평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담론과 법률을 검토하였다. 거시적·제도적으로 DMZ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는 DMZ 평화지대화를 이야기하려면 구조적 측면에서는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며 남북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무력감이 들기도 하였다. DMZ를 둘러싼 70여 년의 역사는 길고, 그동안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개인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다.

## 2.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1

앞서 제1부에서 DMZ 관련 정치적·법적 논의를 살펴봤다면 제2부에서는 DMZ를 둘러싼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제2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NC URI DMZ의 박세영 소장은 <新 통일촌 만들기: 통

일촌 남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제로 도시 관점에서 DMZ의 위치적 특징과 접근성을 살피고, DMZ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실험공간으로서의 통일촌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1973년도 경기도 파주시 북서부에 군사적 목적과 안전의 문제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통일촌이 세워졌다. 오십 년이 흐른 지금은 사실상 통일촌이 독특한 지역적 특색과 경관에도 불구하고 통일촌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DMZ를 새로운 통일촌과 같이 만들어 남북이 서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세영 소장은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에 있는 한반도, 이런 한반도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문을 여는 DMZ는 동서양이 만나는 새로운 열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지리적 이유로 DMZ에서 남북한이 만난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또한 DMZ에서 모이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세계 평화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도로와 교통을 고려하여 통일촌과 운천을 통일 시험 마을로 삼고, 남북 마실 마을을 만들어 남북한 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제2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소속 지성진 학예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DMZ 조사연구 추진 경과와 과제〉를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 프로세스에서의 현 위치와 DMZ에 대한 국내외 및 북측 분위기, 한반도 DMZ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DMZ는 백두대간, 도서 연안과 함께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하나로서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DMZ 일원의 70%가 산림지역이며, 서부에는 습지가 중부에는 평원이, 동부에는 산악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지성진 학예관은 이러한 DMZ의 자연환경 연구를 소개하며 세계유산 등재 기준과 이에 부합하는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정의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덧붙여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서는 유산이 보호되고 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를 통해 현재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 하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과 동시에 등재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제2부의 세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학교 한모니카 교수는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필자도 참여했던 ‘DMZ 평화지도’의 제작 취지와 연구 방법 및 과정을 소개하고 학술회의 현장에서 직접 지도를 사용해 보았다. 발제와 토론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후술 하겠다.

이렇게 제2부에서는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진행 중인 논의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DMZ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이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新 통일촌 아이디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세계의 문화유산이 될 DMZ의 미래, 쉽게 갈 수 없는 DMZ를 디지털 공간의 웹 지도를 통해 나만의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DMZ 평화지도’ 모두 이전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는 논의들이라 생각했다. 제1부에서는 정책과 법적인 담론에 관한 발표를 들으며 개인 한 명 한 명보다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제2부에서는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실천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들었다.

### 3.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과제-2

제3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의 김상준 박사는 <비무장지대 식생과 남장한계선 불모지 식물 연구>를 주제로 DMZ 자연환경의 특징을 소개하고 훼손지의 상태와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DMZ는 앞서 세계유산등재 관련 발표에서 언급했듯, 백두대간 도서 연안과 함께 세계 3대 핵심 생태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준 박사는 식물상 조사를 통해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견하였고, 현재 DMZ의 불모지 복원을 위하여 국립수목원과 군부대(육군본부 및 지상작전사령부)와 협력하여 소재식물 중 선정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약 54종의 식물을 발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DMZ 일원의 생태 복원 소재 식물을 대량 증식하기 위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DMZ 야생화 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한반도 동-서 생태축 복원을 위한 DMZ 야생화 벨트를 통해 군 작전 여건 보장, 생태 축 복원, 통일 후 생태 관광 활용, 경제 가치 창출 등의 기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소개하였다.

제3부의 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이재성 박사는 〈비무장지대 전사자 유품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 유품 보존처리 사업 현황, 유품의 재질별 보존처리 및 보존처리가 완료된 유품의 활용 방안 제시를 발표하였다.

2019년 화살머리 고지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 9만 5천여 점의 유품이 발굴되면서 DMZ에서 발굴된 유품의 보존 처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유해 발굴 감식단, 전쟁 기념관과 협업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약 1300여점을 보존 처리한 상태이다. 이재성 박사의 발표를 통해 유품 연구를 통해 유품에 담긴 전사자 신원 확인의 단서를 찾아야 하며, 전사자의 생애와 전쟁의 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보존처리 결과물을 생산하고 학술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재성 박사는 또한 유품 보존과 활용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고 후손으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제3부에서는 DMZ의 식생과 유품에 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전쟁의 상흔이 남긴 문제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총기나 탄환 등의 전쟁 관련 유품이 남아 있는 곳에서 꽃이 자라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이 DMZ의 역설과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DMZ를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 통일 또는 대북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큰 주제에서 시작하여 실천적인 방안과 세밀한 주제에까지 종합적, 다층적, 복합적으로 보는 시도가 새롭게 느껴졌다.

## II. DMZ 평화지도 제작의 성과와 과제

### 1. 'DMZ 평화지도' 소개

'DMZ 평화지도'는 DMZ 평화지대화의 최종적 모습인 평화지대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나 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DMZ에 대해 알고 싶고 직접 방문하고 싶지만 이에 반해 DMZ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DMZ라는 공간을 물리적, 직접적으로 가볼 수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했으므로 상상을 가능하게 할 장치로서 디지털 공간에 웹 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전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한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대부분 DMZ와 남북 접경 지역이 불규칙하게 지워진 상태의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국가의 공식 지도가 지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지도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도 무언가 지



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도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것은 기억을 되살리고 나아가 새로운 상상력을 촉발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DMZ 평화지도’ 제작을 진행했다.

‘DMZ 평화지도’는 2020년도부터 통일부의 발주 이후 서울대학교 한모니까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해 왔다. 앞선 발제들에서 언급되었듯 DMZ는 탁월함과 독창성을 가진 공간이다. 이것을 웹 지도에 표현하기 다양한 학문 분과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연구 기관들에서 DMZ에 관련해 축적해 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서 활용하였다.

‘DMZ 평화지도’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시간들을 망라하고 있다. 주제 면으로는 지리 지역, 역사 문화, 통일 평화, 생태 환경, 인구 취약, 경제 산업 총 6개의 대분류 아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져 있다. 지도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점, 선, 면, 애니메이션과 같은 시각적 기호부터 요약, 설명, 사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았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DMZ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북 경계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는 어떠할지를 상상해보기 쉽도록 연구자들이 글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DMZ 평화지도’의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도 사용자들은 DMZ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과거에도 계속 변화해 왔고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듯 DMZ의 관할권은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지도를 통해서 관할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 공간이 모두의 DMZ, 한국인의 공간을 넘어 인류와 자연 생태의 공간으로서의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정전협정 지도, 분단 이전의 1910년대 지형도, 한강 하구, 서해 5도, 남측의 접경 시군, 북측의 접경 시군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DMZ를 남북의 단절적인 공간으로서 인식하였다면, 이렇게 접경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와 역사 문화 정보들을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단절과 연결의

공간, 비평화와 평화의 공간 등 다층적인 레이어를 한 화면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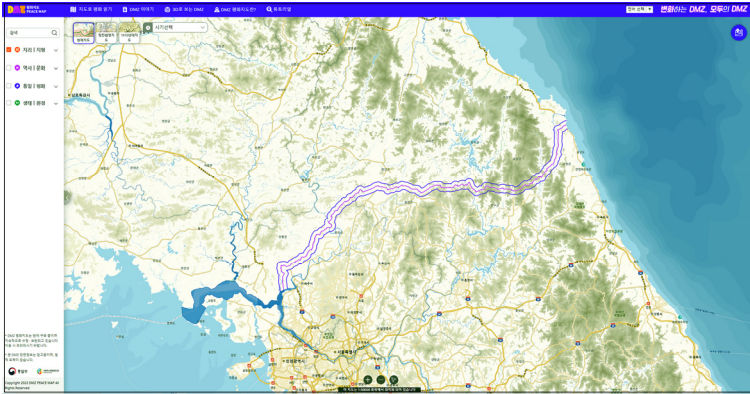
이러한 DMZ 평화지도'는 궁극적으로 '내가 만드는 지도'를 지향한다. DMZ와 DMZ를 둘러싼 공간에서 지도 사용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자신만의 평화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DMZ 평화지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 이용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볼 수 있으므로, 지도 이용자마다 만들어가는 지도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할 것이다. 사용자들은 지금까지는 지워져 있던 지도의 공백 부분을 나의 관심사에 따라 채워 나가는 경험을 통해 남북 경계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DMZ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공간에 개개인이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종합지도는 앞으로의 활용성 또한 무궁무진하다. 'DMZ 평화지도'가 공개된 이후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DMZ 평화지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 외에도 연구, 정책, 문화적인 활용 가능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지도 사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웹 지도의 디자인, 사용성을 위한 기능 보강 또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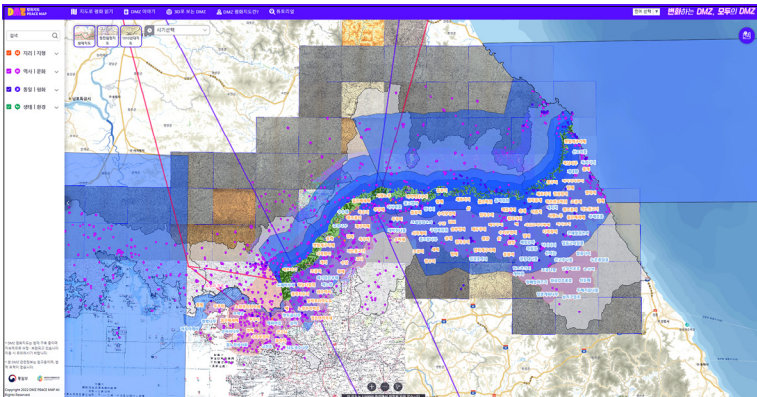
## 2. 'DMZ 평화지도'의 의미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제작에 있어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은 과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성과를 응원하고 싶다. 'DMZ 평화지도'가 웹 지도 형식으로 탄생한 만큼, 이것이 영원한 베타버전, 미완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자

〈그림 1〉 'DMZ 평화지도'의 첫 화면



〈그림 2〉 'DMZ 평화지도'의 정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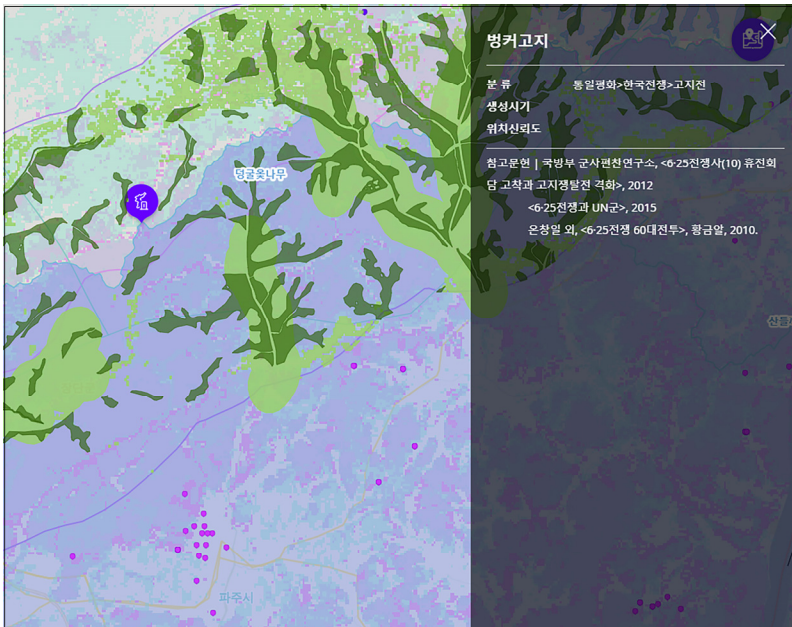


와 학자, 제작자, 개발자,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지도가 되었으면 한다.

‘DMZ 평화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성과 확장성이다. DMZ는 지역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 보통은 전쟁, 생태 등 다른 분야 혹은 관점이 앞서고 그것에 속한 한 항목으로서 DMZ가 다루어지면 DMZ에 대한 평가가 앞선 분야나 관점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지도는 DMZ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DMZ의 의미와 가치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콘텐츠를 포괄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콘텐츠를 재생산하면서 DMZ의 개념과 위상도 더욱 풍부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고지전이 있었던 이리고지 옆에 대마리 선사유적과 금강제비꽃이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는 같이 그려보지 못한 이미지가 한 장면에 담겨, 이전에는 함께 배치되지 않았던 말들이 배치되며 새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듯한 감동을 받아 마치 시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 또한 사용자 단위에서의 가치 생산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3〉 덩굴꽃나무와 병커고지를 함께 볼 수 있는 'DMZ 평화지도'



또한 이 지도의 태도와 성격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이 지도는 전문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지도가 되고자 한다. 책에 비유하자면 논문보다는 문고판 같은, 건축에 비유하자면 개가식 도서관 같은 것이다. 전문성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 분야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가 참여해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해 생산하였으며, 웹 지도라는 형식에 담기면서 현장에서 지도를 사용하며 보여준 것처럼 사용자 반응형으로 쉽고 직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필자는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도의 주요 사용자와 타겟층이 누구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이 지도의 사용자는 특정 집단이 아닌 DMZ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DMZ 평화지도'는 남녀노소, 전문가와 비전문가, 내국인과 외국인, 다른 이념과 문화 종교를 모두 종합할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발제 내용에 나온 것처럼 교육계 등 지도를 알리는 타겟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필자는 DMZ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것 또한 'DMZ 평화지도'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지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진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정부에서도 꾸준히 이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예산과 연구를 배정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덧붙여 'DMZ 평화지도'가 외국어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어 서비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 탄생한 이 지도가 세계로까지 뻗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북을 넘어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도가 되기를 바란다.

### Ⅲ. DMZ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앞으로의 DMZ

이번 학술회의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는 각 연구자의 전문성 있는 발제, 그리고 발제 내용을 심도 있게 만들어 준 토론을 통해 DMZ에 관한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짚어보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물론 DMZ 평화지대화까지 가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DMZ의 지뢰 제거 작업, DMZ의 기초조사 등 선행해야 할 절차가 많으며 국내외의 정치적, 군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지도 모른다.

남한은 자연환경보전과 평화여건 조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 국제사회도 생태계 보전을 강조하며 생물권보전지역 설치 및 평화공원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반면, 북한은 군사력 감축과 군사시설 철수, 남북한 불가침에 대한 선언 등을 강조하여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지금까지 DMZ를 둘러싼 맥락을 훑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도들을 보면서 DMZ의 평화적 미래가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다.

앞서 말했지만, DMZ는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한국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DMZ는 조사의 대상, 즉 객체가 되어 사건의 원인을 다루는 특정 분야의 관점 혹은 장소로만 관찰, 조사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 여러 이야기를 단순히 한 테이블에 제각기 나열해 놓은 것 이상의 의미

를 만들어 냈다. 종속변수가 아닌 매개변수로서의 DMZ는 멜팅 팟(Melting Pot)이 되어 행위자로서 다양한 분야를 하나로 융합하며 주도적으로 미래 가치를 생산해 내고 있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가 한데 모여 연결되고 새로운 상상과 논의를 촉발한 만큼, 이 동력을 잃지 않고 밀고 나간다면, DMZ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고, 'DMZ 평화지도'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참고문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반도평화국립대네트워크 제92차 국내학술회의, (2023년 1월 13일)

DMZ 평화지도, <https://universe.go.kr/peacemap/mainPage.do> (검색일: 2023.04.30.)

한모니까, 「DMZ 디지털 콘텐츠와 公衆의 專有-DMZ 평화지도 기획과 구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45호, 2002, 369~414쪽.

### 김대일 (KIM, Daeil)

---

리소건축사사무소 소장, 대한민국 건축사, 홍익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강사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법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아플리에17을 다녔다. 2015년 피그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였고 2019년에 독립하여 리소건축사사무소를 개소했다.